

사랑하는 여성모임 회원 여러분

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.

몸과 마음에 새 힘과 활력을 되찾는 봄의 길은 에너지를 한 아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 봄세미나에 항상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

우리 재독한국여성모임은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됩니다.

2008년 제 1차 총무단회의에서 가을에 있을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. 계속 이번 봄 세미나에서도 기념행사준비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자 하니 꼭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동안 우리는 이주민 여성조직으로서 자주적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6년에는 'zu Hause' 자전적 에세이를 발간하여 이주민 역사를 독일사회에 알리는데 몫을 했고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료집을 엮었습니다. 지난 총무단 회의에서 여성모임 30주년을 계기로 하여 한글로 에세이집을 발간하자는 제안에 참석한 회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.. 이 제안은 2002-2003년에 걸쳐 회원들의 글이, '시민의 신문'에 연재된 후에 계속 토론되어 온 테마입니다. 이점은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정리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 번 용기와 힘을 모아 이 일을 추진해봅시다.

그리고 6월 14일 토요일 오후에는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을 함께 방문 할 예정입니다. 박정자회원님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(Ausweis 지참바람)

그럼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.

2008년 5월 7일 총무단 일동

세미나 일정표

6월 13일 금요일 저녁

- 세미나 장소 도착은 22시 까지 해야 함.
- 저녁식사는 19시 30분까지입니다.
- 20:00 : 회원 동정 및 시사, 광고

6월 14일 토요일

- 8:30 : 아침식사
- 9:30 : 30주년 기념행사 준비
행사준비 논의는 제 1차 총무단모임
보고서 를토대로 한다.
- 12:00 : -점심식사는 외식(Übernachtung/Halbpension,
Früstück und warmes Abendessen)
-유대인 박물관 방문
- 18:00 : 저녁식사
- 19:00 : 한글로 에세이 집 발간에 관한 건

6월 15일 일요일

- 8:30 : 아침식사
- 9:30 : 30주년 기념행사 준비 계속
총평, 기록통가, 기타
- 12:00 : 점심식사, 귀가

길안내



Von Berlin Hauptbahnhof → **Bus M41** Fahrriichtung
Sonnenallee/Baumschulenstr. → Haltstelle **U-Hallesches Tor** 에서
하차 (9. Haltstelle) → Gitschiner Str. 를 따라 250m 가셔서. 왼쪽방
향인 Lindenstr. 으로 그리고 곧 다시 오른쪽 방향 Alt Jakobstr. 으
로 약 350m 걸어가시면 오른쪽 방향에 Franz-Künstler-Str. 가
있습니다.

**세미나 참가여부를 5월 20일 까지 총무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
세미나장소에서 식사를 할수없기때문에 반찬준비는 안하셔도
됩니다.



2008 년 봄세미나에 초대합니다



사진: 인차조 고국방문(전라남도 광양 매화축제)

Termin : 13.-15. 06. 2008
Ort: Jugendgästehaus DSJ
Franz-Künstler-Str. 4-10
10969 Berlin (Kreuzberg)
Tel.: 030-615 10 07